

<신간>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0-04-30 11:15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 장인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임성모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정선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등이 '보수'를 중심으로 일본 사회를 분석했다.

저자들이 살펴보는 일본의 보수는 '실재'뿐 아니라 '표상'으로서의 보수도 포함된다. 일본의 보수적 속성 자체뿐 아니라 한민족의 경험에서 생긴, 일본 보수를 향한 시선도 함께 파헤치는 것.

저자들은 일본의 보수와 보수주의가 고정된 절대적 이념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이념의 내용을 존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일상적인 보수에 관심을 둔다.

나카노 시게하루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 등 문학과 영화, 만화에서의 서사 구조를 따져보기도 하고 혈연 이데올로기나 '일본인'과 '외국인'의 경계 설정을 살펴보기도 한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20쪽. 1만5천원.

▲슬랙(Slack) - 변화와 재창조를 이끄는 힘 = 경영 컨설턴트 톰 드마르코가 말하는 혁신의 힘. 류한석, 이병철, 황재선 옮김.

저자는 '일시적 비효율로 보이는 느슨함, 여유'라는 뜻으로 '슬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빨리빨리"를 외치며 조직원을 재촉하고 내모는 조직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운영에도 여유를 가져야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인사이트. 306쪽. 1만3천800원.

▲겨울 허수아비 = '한국근대작가론고', '술래잡기' 등을 냈던 이영성 연합뉴스 관
리국 기획위원의 칼럼을 모았다.

서울광장, 환경오염, 기부문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적은 글, 강냉이죽과 군
것질거리 등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전하는 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여행한 경험을
전하는 글들을 엮었다.

나눔커뮤니케이션. 404쪽. 1만2천원.

▲유혹하는 심리학 = 스콧 릴리언펠드 예머리대 교수, 스티븐 제이 린 뉴욕주립대
교수 등 지음. 문희경, 유지연 옮김.

"인간은 뇌의 10%밖에 쓰지 못한다", "정반대 스타일의 이성에게 끌린다",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다" 등 잘못된 상식이나 심리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등 대중문화에 잘못 그려
지는 신경과학적 지식도 설명한다.

타임북스. 336쪽. 1만5천원.

▲스포츠 컬렉션 = 호주 머레이북스 'TOOTS' 시리즈를 번역한 스포츠 책 시리즈.
'Football 축구', 'Baseball 야구', 'Golf 골프' 등 3종이 함께 나왔다.

각 운동 종목의 역사와 규칙, 대표적인 국제 대회, 각국의 스포츠 문화, 전설적인
선수, 스타플레이어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한국방송출판. 164~191쪽. 3만5천원.

▲인생, 전쟁처럼 = 비즈니스 전문작가 앨런 액슬로드 지음. 구세희 옮김.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기에 처한 영국을 이끌면서도 승리를 목표로 삼아
기회를 노렸던 윈스턴 처칠 전 총리에게서 '위대한 지도자'보다는 '성공한 경영
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낸다.

21세기북스. 312쪽. 1만5천원.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가 역사에서 경영 리더십
을 찾는다.

한비자, 처칠, 제갈량, 이순신, 이나모리 가즈오 등 리더 11명이 조직을 어떻게 이
끌고 인간을 관리하며 의사소통했는지 분석했다.

흐름출판. 368쪽. 1만6천원.

cherora@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3253135>

인쇄하기

취소